금주의 법구–〈아함경〉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 말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1월 2일)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코로나 시름, 빛 속 사라지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 조계종 중앙신도회(이사장 · 신도회장 주윤식)가 진행한 '2020 행복바라미 불교전통문화 사진공모전' 최우수상으로 '운주사의 빛'이 선정됐다. 날마다좋은날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12월 1일 신승희 씨의 운주사의 빛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사위 측은 "운주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표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프로처럼 '잘' 찍은 사진 뿐 아니라 아마추어 느낌이 있지만 참신하고 공감이 가는 작품들도 선정했으며 일반 참가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제공=날마다좋은날

불교 호감도 1위… 코로나 대응 호감 상승

한국리서치 1000명 설문조사 결과 살펴보니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5개 종교 중 1위를 기록했다.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과 마음 치유에 대한 행보가 호감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불교를 포함해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교가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고 11월 25일 밝혔다.

한국리서치는 각각의 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0점, 매우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100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면 50점 등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불교는 평균 50.9점으로 응답자 41%가 51점 이상의 긍정적인 점수를 주었다. 불교는 49점 이하의 부정적 점수를 준 응답자 비율이 28%에 불과했다.

가톨릭은 평균 50.3점으로 불교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29%가 49점 이하의 부정적인 점수를 줘 부정인식이 약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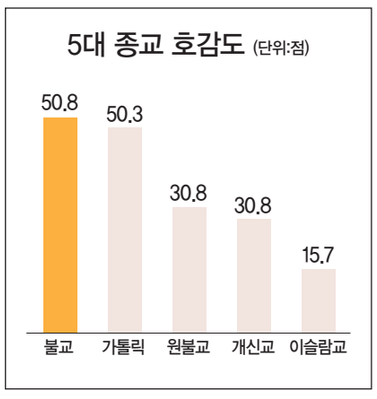
개신교는 호감도 점수가 28.0점으로 원불교의 호감도 점수인 30.8점보다도 2.8점이나 낮았다. 개신교는 과반이 넘는 54% 응답자가 24점 이하의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한 호감도도 조사됐는데, 5대 종교 중 최하인 15.7점에 그쳤다.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본인이 믿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먼저 가톨릭(75.5점), 불교(71.4점), 개신교(62.3점)는 모두 본인이 믿는 종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차이점은 본인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한 평가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불교(48.9점)에 가장 높은 호감을 보였다는 점이다.

불교를 바라보는 타종교인들의 호감도는 가톨릭(58.1), 무종교(48.9), 기타종교(46.3), 개신교(33.4) 순이었으며, 기타 종교와 무종교, 가톨릭 신자들은 불교를 본인 종교 외에 호감도 1위로 꼽았다. 개신교의 경우 가톨릭을 1위, 불교를 2위로 꼽았다.



불교, 가장 높은 호감 기록해
무 · 타종교인 호감 특히 높아
의지 · 안정감 제공 도움 여론
"치유 · 긍정인식 확대나서자"

한국리서치 측은 "코로나 이후 각 종교계의 행보에서 종교에 대한 극명한 호감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강화되는 종교 집회 금지 등에 대한 긍정평가도 함께 조사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4월 이후 70%대 긍정평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자들의 불교계 방역조치 및 집회 금지 등에 대한 종교별 긍정평가는 전체 긍정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회 등 종교활동이 제한을 받았으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믿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의지할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인간관계(70%), 긍정적 감정(68%), 소속감(66%)으로 응답 순위가 높았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불교에 대한 타종교인, 무종교인들의 호감 상승 추세는 코로나 이후 대응과 마음 치유를 골자로 한 불교계 행보에 대한 긍정인식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며 "국민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긍정적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데 불교가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버스토리 조계사 피신 5년 한상균 前위원장 지금은…



"부처님 가피로 제가 존재하죠"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시위를 주도하다 수배령이 내려진 채 조계사로 피신했던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화제의 인물이었다.

25일간 이어졌던 그의 조계사 은신은 불교계는 물론,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일대 사건으로 회자된다. 당시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공권력이 조계사를 침탈하면서 조계종 종무원과 불자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 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노동자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치고 당당한 걸음으로 조계사를 나와 경찰에 호송되던 장면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킨 최고의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로부터 꼭 5년이 지난 12월 10일 그를 만났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감옥에 수감된 채 2년 6개월을 보냈고, 가석방 출소 후 이젠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이끄는 '권리찾기 유니온' 대표로 한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신분에서 벗어나 마지막 복직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삭발 후 짧은 머리카락 위로 '투쟁'이 새겨진 붉은 색 머리띠를 두른 채 거친 음성으로 울분을 토하던 모습도 이젠 찾아볼 수 없다. 부드러운 표정과 차분한 목소리지만, 근로기준법의 차별 없는 적용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노동권을 말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대신 더 깊어지고 묵직해졌다.

조계사 은신 당시 온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알 수 없었던 속사정도 이제는 웃으며 꺼낼 수 있다. 그는 "조계사와 조계종, 불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말했다. 옥중편지로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前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의 아니게 불교계에 심한 민폐가 됐습니다. 특히 부처님을 예경하며 예불을 올리는 공간이 격전지가 된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부처님의 너른 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불교계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관련인터뷰 2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당신의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어린이·청소년센터 건립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동련은
어린이·청소년 **인성과 희망**을 키웁니다.
지혜·자비 바탕을 키웁니다.
내일 인재 **참 불자**를 키웁니다.

–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문화, 인성, 마음행복 프로그램
– 학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 지도자를 위한 전문 교육
– 어린이·청소년 활동 지원 및 상담

• **후원계좌**(예금주 : 사단법인 동련)
부산은행 140-01-002189-8 농협 301-0278-6185-41

어린이 • 청소년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증명	정관 혜총
고문	정여 철오 지현
총재	지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부총재	운성 덕진 지광 심산 성행
추진위원장	신공(이사장)
추진부위원장	정무(상임이사)
추진위원	도제 탄경 혜타 지우 능후 효산 명원 현수 혜성
사무총장	미수
지역후원관리	김미경 김상희 김용숙 박영우 신현임 조현주

사업부 최미선 지원부 이현미 홍보부 손무늬 모금부 박소정

사단법인 동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48번길 22 세인빌딩 3층
Tel (051) 864-4569 Fax (051) 864-4665
www.dongryun.net